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Goryeo Eighty-Thousand Tripitaka's Wood Printing Blocks, Its Enshrinement and the Placement of Its Bookshelves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론 | 5. 해인사 대장경판전의 移安과 판가 구성 |
| 2.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및 규모 | 6. 결론 |
| 3. 고려 팔만대장경의 구성 체계 | <참고문헌> |
| 4. 고려 팔만대장경의 봉안과 선원사 | |

< 초 록 >

고려 팔만대장경은 고종 23년(1236)부터 38년(1251)까지 16년 동안 강화의 대장도감과 남해 분사도감에서 간행된 총 1,514종 81,350판인데, 중복판 108판을 제외하면 81,242판이다. 이중 대장도감판이 72,610판이고, 분사대장도감판이 8,632판이다.

팔만대장경의 구성 체계는 天函부터 英函까지는 『開元釋教錄』에 의거하여 板刻한 北宋 開寶勅板의 구성 체계를 따랐고, 杜函부터 楚函까지는 宋朝大藏經이 들어오는 대로 累加 編入되었기 때문에 구성이 일정하지 않다. 更函에는 『大藏目錄』이 들어 있으며, 霸函부터 洞函까지는 再雕시의 추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팔만대장경의 봉안은 대장도감과 분사도감 두 곳의 판각을 합쳐서 강화의 대장경판당에 봉안하고 경찬회를 행하였다. 대장경판당은 선원사에 위치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선원사의 위치는 강화도 신니동 일대로 보는 의견과 선행리 충렬사 앞·뒤쪽 일대로 보는 두 견해가 있다. 선원사는 고려말까지 사세를 유지하면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였다.

팔만대장경의 봉안은 처음에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되다가 조선 태조 7년(1398)에 서울 서대문 밖 지천사로 옮겨진 후 다시 해인사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국보 제52호의 해인사 大藏經板殿에 보관되어 있다. 네 동의 건물 중 팔만대장경의 경판이 보존되어 있는 두 동의 동북쪽에 위치한 법보전과, 서북쪽 있는 수다라전이다. 이 경판전에 봉안된 팔만대장경판은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10권을 단위로 해서 배열순서는 천자문의 함차를 배정하고 있다. 경판의 배치는 법보전 중앙 판가 우측에 위치한 1번 판가에서 출발해서

* 본 연구는 2010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2010년 해인사 주관의 대장경판 DB구축 및 3D 영상사업과 관련된 발표집에 실린 초안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0년 8월 18일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5일

규칙적으로 모든 판가를 채우고 修多羅殿 판가로 계속되며 모든 판가를 채우고 있다.

要語: 고려팔만대장경. 대장도감, 분사도감, 선원사, 해인사 대장경판전

<ABSTRACT>

The Goryeo Eighty-*Thousand* Tripitaka is a collection of 81,350 woodblocks of 1,514 types issued in Gangwha Island region's Daejangdogam and Namhae's Bunsadogam over a period of 16 years during King Gojong's 23rd year(1236) to his 38th year(1251). Except 108 overlapping woodblocks, there are 81,242 woodblocks. Among these there are 72,610 Daejangdogam blocks and 8,632 Bunsadaejangdogam blocks.

The layout of the Eighty-*Thousand* Tripitaka from Cheonham(天函) to the Youngham(英函) follows the system of Northern Song(北宋) Gaebochikpan(開寶勅板), carved according to the *Gaewonseokgyorok*, whereas the tripitaka's layout from Duham(杜函) to Choham(楚函) is inconsistent because it was incorporated in the order that Song dynasty Tripitaka(宋朝大藏經) was introduced. Gaengham(更函) contains *Daejangmrok*(大藏目錄), and Paeham(霸函) to Tongham(洞函) is composed of woodblocks additionally made during the time the second carved Tripitaka(再雕大藏經) was created.

The Enshrinement of the Eighty-*Thousand* Tripitaka in Ganghwa's Daejanggyeongpandang was done by putting the woodblocks of Daejangdogam and Bunsadogam together, after which a Buddhist ceremony was held in honor of the occasion. The Daejanggyeongpandang is thought to have been in Seonwonsa whose location was assumed to be either in Ganghwa Island's Sinnidong region or in front of and behind Seonhaengri's Chungryeolsa. Seonwonsa maintained its power until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s it housed the Eighty-*Thousand* Tripitaka.

The Eighty-*Thousand* Tripitaka was first placed in Ganghwa Island's Seonwonsa, then moved to Jicheonsa outside of Seodaemun in Seoul in the 7th year of King Taejo's reign (1398)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as again moved to Haeinsa Daejanggyeongpanjeon, the 52nd national treasure of Korea, where it is now housed. The Eighty-*Thousand* Tripitaka is stored in two of the Haeinsa Daejanggyeongpanjeon's four halls, that is, the Beopbojeon, located northeast and the Sudarajeon, located northwest. With some exceptions, the Eighty-*Thousand* Tripitaka is placed mostly in units of 10 volumes each and its Hamcha(函次) is arranged in order of *Cheonjamun*. The placement of the sutra woodblocks begins with the first bookshelves to the right of the central bookshelves of the Beopbojeon, fills all the shelves in an orderly manner and continues to the Sudarajeon shelves to the final shelves.

Key words: The Goryeo Eighty-*Thousand* Tripitaka. Daejangdogam, Bunsadogam, Seonwonsa, Haeinsa Daejanggyeongpanjeon

1. 서 론

해인사는 2009년 5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9일까지 “팔만대장경 경판, 판진, 판가에 대한 DB 기초작업/ DB 구축 /3차원 영상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그 일차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해인사 장경판전 및 대장경판 보수사업’ 이후의 성과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보존관리를 위한 전산화 및 웹서비스를 구현하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는 팔만대장경 경판의 내용, 경판 사진, 제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팔만대장경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확대하고, 대장경 판전의 출입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현실감 있는 3D 영상을 제공하여 인터넷 상에서 사실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웹서비스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팔만대장경의 경전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¹⁾

해인사의 이러한 영상 구축사업은 몇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연구자들은 경판의 이미지를 실물 크기로 화면에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해제는 물론이고 실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서지데이터를 찾고 비교할 수 있게 됨으로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유네스코에서는 2007년 6월 팔만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 그 경판을 봉안한 대장경판전(국보 제52호)을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는데, 경판 및 경판전은 일반 이용자의 접근으로부터 분리되어 보존환경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일반 이용자들은 팔만대장경을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고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새로운 문화세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고려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연구는 강화 경판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지만, 불교학과 서지학 등 특정 분야에 치우쳐 각성 사업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면밀하게 규명해 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고,²⁾ 새로운 발견 자료를 통해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면

1) 해인사, 해인사 자문회의 보고자료(2009. 6), 3.

2)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景仁文化社, 2006), 2.

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이 나왔지만 이 또한 자료의 정확성이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³⁾

필자는 팔만대장경판의 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⁴⁾ 또한 팔만대장경은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모든 내용을 동시에 파악하기가 힘들어 비교적 권질이 많은 경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먼저 “고려 팔만대장경 『유가사지론』의 판각과 봉안에 관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였다.⁵⁾

본 연구는 팔만대장경의 판각 및 규모, 팔만대장경의 구성 체계, 팔만대장경의 봉안과 선원사, 해인사 대장경판전의 이안과 판가 구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고려 팔만대장경의 서지적 및 불교사적 연구 분야에 기초자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호관련 연구영역에도 효과적으로 활용 될 것이다.

2.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및 규모

고려 고종 18년(1231) 8월 몽골의 침입으로 인하여 이듬해인 고종 19년(1232)

3)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각성사업에 대한 근대 100년의 연구사 쟁점,” 『석담논총』 44(2009), 136-138.

4) 해인사는 2009년 5월 14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팔만대장경(경판, 판진, 판가)에 대한 3차원(3D) 영상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팔만대장경판 사업의 연구진은 ‘제1팀 한국불교사상사팀’, ‘제2팀 한국불교서지학팀’, ‘제3팀 대장경편제연구팀’, ‘제4팀 디자인·건축분야자문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팀, 제2팀, 제3팀은 각각 해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본인은 연구위원단 중 제2팀인 한국불교서지학팀의 팀장으로 해제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 사용되는 새로운 자료들은 연구와 관련해서만 사용된 것임을 밝혀둔다.

5) 姜順愛, “고려 팔만대장경 『유가사지론』의 판각과 봉안에 관한 사례 연구,” 『소통과 인문학』 제10집(2010), 5-33.

에 대구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던 현종 2년(1011)부터 선종 4년(1087)까지 조성된 6,000여 권의 고려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렸다.

고려 정부는 몽골의 병화를 피해 고종 19년(1232) 6월에 강화로 천도를 하여 임시 수도로 삼고 외침에 대항하였다. 崔瑀(또는 崔怡)의 감독 하에 고종 21년(1234) 정월에 궁정과 백사를 영조하였다. 그해 10월에 최우는 천도의 공로로 晉陽侯에 책봉되었다. 이어서 그는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대장경을 다시 조성할 것을 구상하였다. 대장경 조성의 동기와 거국적 서원은 대장경의 조판이 나오기 시작한 고종 24년(1237)에 쓴 <大藏刻板君臣祈告文>에 잘 나타나 있다.⁶⁾

이 기고문에 의하면 현종 때 판각되어 대구 부인사에 소장 중인 대장경판이 소실되어 宰執과 문무백관 등이 함께 큰 서원을 발하여 각성사업을 착수하였다는 것과 재장경판 사업의 재개는 반몽항쟁이 일환임을 천하에 천명하고 있다.⁷⁾

고려 팔만대장경의 雕板의 시작과 그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는 李奎報의 <大藏刻板君臣祈告文>과 『高麗史』 <世家> 고종 38년(1251) 9월조에 기록되어 있다.⁸⁾ 이 내용에 의거하면 고종 23년(1236)에 대장경의 판각업무를 맡아보는 구당관사인 大藏都監을 설치하고 다음해부터 각판을 시작하여 16년 뒤인 고종 38년(1251)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구당관사인 대장도감의 조성 과정과 경영 및 조판장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최근의 한 연구에서 대장도감은 11세기 초 현종 때 설치·운영된 玄化寺의 成造都監의 조직과 같은 別監 - 使 - 副使 - 綠事 또는 判官 - 記事와 같은 서열로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장도감의 지방 조직으로 설치된 분사대장도감의 조직인 使 - 副使 - 綠事 - 校勘의 체계가 성조도감과 유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⁹⁾

李奎報의 저술인 『東國李相國集』을 판각할 고종 38년(1251) 당시 진주목에

6) 千惠鳳, “고려대장경의 조성 과정과 봉안,” 강화부군사편찬위원회 편, 『新編江華史』 (강화부군사편찬위원회, 2003), 56-58.

7)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5, <大藏刻板君臣祈告文>.

8) 『高麗史』 卷24, <世家> 24, 高宗 38年 9月 壬午.

9) 최영호, “13세기 중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운영형태,” 『석담논총』 43(2009), 158-159.

설치된 분사도감의 구성조직을 보면, 최고책임자인 使의 직제는 慶尙道按察使가 겸직하였고 실제 최고 관리자인 副使의 직제는 晉州牧副使가 겸직하였다. 실무를 수행한 綠事의 직책은 同正職의 井洪湜과 張世候가 충원되어 있으며 교감은 하동군의 감무인 李益培가 담당하였다. 別監을 제외한 使 - 副使 - 綠事의 직제까지 玄化寺의 成造都監의 조직과 유사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았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분사도감이 대장도감의 하위 보좌기구라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성조도감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임시행정기구였던 대장도감에는 최고행정책임자로 사업을 총괄한 別監의 직제가 있고, 그 아래 使 - 副使 - 綠事의 체제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⁰⁾

구당관사인 대장도감이 고종 23년(1236)에 설치되기 이전부터 경관을 조조하는데 필요한 준비 작업은 미리 몇 년 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경관에 판각을 하기 위한 연판과정이 필요하다. 판각용 나무는 산벚나무(70%) 돌배나무(13%)였으며, 나머지는 단풍나무, 자작나무, 박달나무, 후박나무, 층층나무, 굴거리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의 10종이 사용된 것으로 최근의 조사에서 밝혀졌는데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의 결을 삭히기 위해 바닷가의 내호(內湖) 같은 곳에 오랫동안 담가두어야 하고, 다음은 팔만대장경 경판의 크기인 가로 68-78cm, 세로 24cm, 두께 2.8-3.4cm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밀폐된 곳에 넣고 짚물로 찌서 즙액을 완전히 빼는 동시에 살충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끝나야 조판이 시작될 수 있다. 다음은 인쇄하기 전에 일부 경전의 교감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의 총책임을 맡은 守其 법사는 國本人 초조본 初雕本과 宋本, 거란본(契丹本)을 대교하여 송본의 誤脫, 錯寫, 異譯 등의 논정은 물론 경명, 역자명, 권수, 함차 등의 이동을 밝히고 정문을 보족하여 총 70함 66경 79건을 교감하였는데 이들은 千函부터 英函까지 『開元釋教錄』에 실린 480질(帙)과 策函부터 密函까지의 43질에 해당한다.¹¹⁾ 이러한 준비 작업이 완료되자 고종 23년(1236)부터는

10) 최영호, “13세기 중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제와 운영형태,” 『석담논총』 43(2009), 160-161.

11) 姜順愛,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分析을 통해 본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變容에 관한 研究,” 『한국비블리아』 제7집(1994), 103-104.

각판을 시작하여 24년(1237)부터 완성된 대장경판이 생산되기 시작하여 고종 38년(1251)에 작업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화의 대장도감을 중심으로 한 판각사업은 최우의 처남인 鄭晏(이름 奮)이 강화경에서 국자감의 좌주(祭酒)로 있다가 남해로 낙향한 이후에는 분사도감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가 남해로 낙향한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국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간 고종 26년(1241) 말기부터 27년(1242) 초기로 추정하고 있다.¹²⁾ 남해의 분사도감에서 대장경의 조판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고종 30년(1243)부터로, 그해 가을 斷俗寺의 주지 萬宗이 아버지인 최우의 수명장수와 싸움의 종식과 조야화평을 기원하기 위해 「禪門拈頌集」 제1권-30권을 판각하였다.¹³⁾ 이후 남해분사도감에서 조판한 간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¹⁴⁾ 남해분사도감의 개판은 고종 32년(1245)부터 고종 35년(1248)까지 6종 128권이 간행되었다. 또한 최이의 아들 萬畊은 崔沆으로 개명하고 정권을 이어 받은 고종 36년(1249) 이후에 도감의 판각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시재 독려하였다. 이리하여 대장경의 판각은 고종 24년(1237)부터 동왕 35년(1248)까지는 정장이 새겨지고, 그 뒤 동왕 38년(1251)까지의 3년간과 이어 한동안은 教宗類, 僧傳類, 문집 등이 새겨졌다. 고종 41년(1254)에 판각된 「宗門摭英集」, 「禪苑清規」, 「注心賦」 등이 마지막 간행인 듯하다. 해인사의 보유판 15종 가운데, 「宗鏡錄」, 「祖堂集」,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 「華嚴經探玄記」 등 4종을 제외한 나머지 11종 97권은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國刊板이 아니고 사간판(寺刊板, 私刊板)이다.

고려 팔만대장경의 경판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데, 대장목록에는 1,524종 6,569권이고, 일제시대 印經기준에 의하면 1,512종 6,819권 총 81,258매이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2) 「高麗史」 卷100, <列傳> 13, 鄭晏.

13) 「禪門拈頌集」 卷30, 末尾 斷俗寺住持禪師萬宗記. “... 晉陽公壽算延綿 身宮帖泰 干戈息靜 朝野和平.”; 癸卯中秋逸庵居士鄭晏跋. “禪師萬宗般若 中來乘鳳 願力輸賄于海藏分司 募工彫鏤 以壽其傳.”

14) 千惠鳳, “고려대장경의 조성과 봉안,” 강화부군사편찬위원회 편, 「新編江華史」 (강화부군사편찬위원회, 2003), 61-62.

에 의하면 정장 1,497종 6,558권, 보유정장(부장) 4종 150권 총 81,258매이다. 서수생의 조사에 의하면 1,541종 6,844권 총 81,240매(160,642장)이고, 동국대 영인본은 1,514종 6,812권 총 80,280매(160,560장)이다.¹⁵⁾ 이러한 차이는 그동안 팔만대장경판의 규모와 수치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신빙성을 지니지 못했다.

하지만, 해인사에서 ‘판전 및 대장경판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고려 팔만대장경판은 1,514종(경) 81,350판 162,700면이다. 81,350판중 대장도감판이 72,610판이고, 분사대장도감판이 8,632판이며 중복이 108판이다. 중복은 마모가 있거나 원판을 관리하면서 다른 판가에 꽃혀 있어서 결판으로 인지되어 보관한 것인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원판 81,242판을 모두 찾아서 실제로는 결판이 하나도 없었다. K. 1499-K. 1514는 보유판이다. 대장경 원판 81,242판을 판각연도별, 대장도감, 분사도감별로 조판수의 통계를 내면 <표 1>과 같다.

<표 1> 팔만대장경 판각연도별, 대장도감, 분사도감별 조판수

판각연도	대장도감	분사대장도감	합계	비고
1237	1,682		1,682	
1238	6,591		6,591	
1239	3,294		3,294	
1240	3,701		3,701	
1241	3,631		3,631	
1242	4,540		4,540	
1243	13,051	3,075	16,126	
1244	16,438	3,715	20,153	
1245	8,038	663	8,701	
1246	5,167	457	5,624	
1247	1,265	315	1,580	
1248		376	376	
년도미상	5,212	31	5,243	K1510(중복 1매) K1511(중복 2매)
합계	72,610	8,632	81,242	

15)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景仁文化社, 2006), 141.

<표 1>을 참조하면, 1237년에 대장도감에서 조판이 시작되어 1,682판이 간행되었고, 이듬해인 1238년에는 3.9배가량 늘어서 6,591판이 간행되었다. 1239년부터 1242년까지는 3,294판, 3,701판, 3,631판, 4,540판을 간행하였다. 1243년부터는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이 분담하여 조판하였는데, 판수가 전년에 비하여 3.5배가 늘어나 대장도감이 13,051판을, 분사도감이 3,075판을 간행하여 도합 16,126판으로 증가하였다. 1244년에는 판각양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대장도감이 16,438판, 분사대장도감이 3,715판으로 도합 20,153판이 간행되었다. 1245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2.3배가 줄어든 8,701판인데 그 이유는 대장도감이 조판한 판수도 2배로 줄어든 8,038판이지만, 분사도감의 조판수는 5.6배가 줄어든 663판에 불과하다. 1246년에는 더 줄어들어 대장도감이 5,167판, 분사도감이 457판을 분담하여 총 5,624판을 간행하였다. 1247년에는 전년에 비해 3.5배가 줄어서 대장도감이 1,265판, 분사도감이 315판을 간행하여 총량이 1,580판이었다. 1248년에는 대장도감의 간행판수는 없고, 376판이 분사도감에서 간행되었다. 년도미상의 판본이 5,243판인데, 대장도감이 8,632판, 분사대감판이 31판이다. 원판 내에서는 3판의 중복이 있는데, 당시 각수들의 착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3. 고려 팔만대장경의 구성 체계

고려 팔만대장경의 구성의 단서가 되는 것은 再雕大藏經 更函에 入藏된 「大藏目錄」이다. 이 목록은 上, 中, 下의 3권으로 再雕大藏經에 관한 목록이라면 대장경의 末尾인 洞函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更函에 들어 있어 初雕大藏經目錄임을 알 수 있다. 즉 更函앞에 실린 天函부터 楚函까지에 실린 570函에 실린 경전들은 初雕大藏經의 구성에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更函 다음의 洞函까지의 경전은 再雕시 추조본에 해당된다. 따라서 고려 팔만대장경의 구성 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天函부터 寧·晉·楚函은 초조대장경의 구성과 관련이 있고, 更函에 大藏目錄이 들어 있으며, 霸函부터 洞函까지는 再雕시의 推조본

이다. 이 구성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藏目錄』의 更函 앞에 수록된 天函부터 楚函까지의 藏經의 구성은 중국에서 수입된 北宋 開寶勅板, 契丹板, 宋朝大藏經과 國內傳本系の 일부 藏經을 底本으로 하여 간행되는 대로 累加 編入시켰는데 初雕大藏經의 累加的 성격에 근거하여 그 구성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大藏目錄』은 장경이 수입되는 대로 간행하여 累加 編入하면서 函次順에 의해 구성하였다. 天函부터 英函까지는 『開元釋教錄』에 의거하여 板刻한 北宋 開寶勅板의 구성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구성체계가 일정하지만, 杜函부터 楚函까지는 宋朝大藏經이 들어오는 대로 累加 編入되었기 때문에 구성이 일정하지 않다. 여기서는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開寶勅板에 의한 分野를 보면 『大藏目錄』의 天函부터 英函까지는 북송의 개보칙판에 준하여 간행하였으므로 구성체계도 이를 따르고 있다. 『開元釋教錄』의 刊定入藏錄인 有譯有本錄에 의거하여 불교의 교리내용에 따라 菩薩三藏錄(大乘三藏錄), 聲聞三藏錄(小乘三藏錄), 聖賢傳記錄으로 나누고 大乘三藏錄과 小乘三藏錄을 다시 經, 律, 論으로 세분하였으며, 그 아래서 다시 세목으로 전개하였다. 大乘經은 般若部, 寶積部, 大集部, 華嚴部, 涅槃部, 五大部外諸重譯經, 大乘經單譯으로 나누고, 大乘律은 세목전개를 하지 않았으며, 大乘論은 大乘釋經論과 大乘集義論으로 나누었다. 小乘經은 根本四阿含經, 長阿含中別譯經, 中阿含中別譯經, 增一阿含中別譯經, 雜阿含中別譯經, 四含外諸重譯經, 小乘經單譯으로 세분하였고, 小乘律은 正調伏藏과 調伏眷屬藏으로, 小乘論은 有部根本身足論과 有部及餘支派論으로 나누었다. 聖賢傳記論은 다시 梵本翻譯集傳과 此方撰述集傳으로 나누었다.¹⁶⁾

開寶勅板의 다음은 宋朝大藏經에 의한 分野인데, 이는 杜函부터 楚函까지가 해당된다. 이들 함차는 開寶勅板의 구성 체계와는 달리 일정하지가 않다. 文宗 37년(1083)에 들어온 宋朝大藏經 즉 宋新譯經과 貞元入藏經 그리고 기타의 經

16) 智昇, 『開元釋教錄』, 권11-13 有譯有本錄. 『大正新修大藏經』目録部(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77), 582-625. ; 張曼濤, 『佛教目錄學述要』(臺北: 大乘出版株式會社, 民國 67(1978)), 109-110 圖表 參照.

典이 들어오는 대로 刊行되어 累加 編入되었기 때문이다. 宋新譯經의 入藏目錄인 『大中祥符法寶錄』은 大乘經律論, 小乘經律論, 聖賢集傳翻譯著撰의 체계에 맞추어 경전을 실고 있는데, 『大藏目錄』에는 이 체계와는 상관없이 經典이 입수되는 대로 累加 編入하고 있다. 貞元入藏經의 목록으로는 『續開元釋教錄』, 『貞元新定釋教目錄』, 『續貞元釋教錄』이 있는데, 이들 목록은 『開元釋教錄』에 의거하고 새롭게 번역된 경전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편찬한 것이다. 『大藏目錄』에 실린 貞元入藏經도 목록의 체계와는 관계없이 들어오는 대로 간행하여 累加 수록하고 있다. 이외에 底本目錄을 알 수 없는 일부 경전이 누가 수록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체계화된 『大藏目錄』의 初雕藏經 구성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 天函 - 英函: 開元釋教錄
- 杜函 - 毘函: 大中祥符法寶錄
- 振·纓·世·祿·侈函: 新集藏經音義隨函錄 30冊
- 富·車·駕·肥·輕函: 大中祥符法寶錄 東土聖賢著撰(宋太宗御 製箋注再編本)
- 策·功·茂·實函: 貞元新定釋教錄(大方廣佛華嚴經 40卷)
- 勒·碑·刻·銘函: 續貞元釋教錄(新華嚴經論 40卷)
- 磻函: 續開元釋教錄
- 溪函: 續貞元釋教錄(千臂千鉢曼殊室利經 10卷)
- 伊函 - 桓函: 續開元釋教錄
- 公函 - 綺函: 貞元新定釋教目錄
- 廻·漢函 - 俊·父·密函: 續貞元釋教錄
- 勿·多·士·寔函: 大般涅槃經 36卷
- 寧·晉·楚函: 佛名經 30卷

초조대장경의 구성 체계 다음의 更函에는 『大藏目錄』이 들어 있고 更函 다음의 羈函부터 洞函까지는 재조시 추가로 입장시킨 경전들이 들어 있다.

팔만대장경은 대장도감의 설치이후 본문의 검토와 교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추가하였는데, 대장경의 내용이 많거나 중요한 것으로 본문을 다시 검토하여 교

17) 姜順愛,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의 累加的 性格에 관한 研究,” 『大藏經의 世界』 (東國譯經院, 1994), 417-419.

정해야 하는 것은 대체로 남해의 분사대장도감에서 후반기에 조성되었다.

팔만대장경 조판의 가장 큰 특색은 하나는 「三本華嚴經」은 晉本 60권, 周本 80권, 貞元本 40권인데, 초조본의 14자 판식을 국내 사찰본인 17자 판식으로 대체하여 편입시켰고, 이통현이 지은 「新華嚴經論」 40권은 초조본의 14자 판식을 국내 사찰본인 16자 판식으로 대체하여 편입시켰다. 다른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守其 법사가 교감한 총 70함 66경 79권을 분석하면 7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⁸⁾ 첫째, 초조본의 위본은 再雕時 경전의 眞僞 與否로 宋本을 丹本으로 대체한 것으로 7종 있는데, 鞠函의 「月等三昧經」 1권(宋 沙門 先公 譯), 容函의 「受歲經」, 止函의 「佛說頻毗婆羅詣佛供養經」(法炬 譯), 若函의 「四未增有經」(竺法護 譯), 籍函의 「本事經」 3권, 竟函의 「受新歲經」(竺法護 譯), 隨函의 「彌沙塞五分戒本」(宋 闍賓三藏 佛陀什 等譯)이다. 둘째, 宋本 또는 國宋本の 無失로 丹本이 編入된 것으로 3종 있는데, 養函의 「佛說彌勒下生成佛經」, 義淨譯(宋無丹有今還收入), 知函의 「最勝燈王如來經」(闍那崛多 譯), 詩函의 「蘇悉地羯羅供養法」 3권이다. 셋째, 宋本, 國宋本, 國本の 重出로 再雕시 削除하거나, 丹本이나 다른 經典으로 代替한 것이 5종 있는데, 才函의 「六字神呪經」, (菩提流志 譯), 羔函의 「魔逆經」(法護 譯), 孰函 「佛說木槵經」(不空 譯), 廻函 「摩訶衍論」, 漢函 「玄文論」이다. 이 중 「摩訶衍論」 10권과 「玄文論」 20권은 守其法師의 校勘記를 참조하면, “이 廻函과 漢函의 두 函次에는 본래 國本人인 「佛名經」 18권본이 들어 있었는데, 寧晉楚函의 30권본과 비교해보니, 동일 경전이 었다. 후대 사람이 두 경전의 권수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異經으로 錯認하여 重編한 것이다. 지금은 30권본이 유통경전이므로 18권본을 削除하고 대신 廻函에는 「摩訶衍論」 10권을, 漢函에는 「玄文論」 20권을 代替한다.”¹⁹⁾라고 하였다. 넷째, 俊乂密函에 들어 있는 國本 「一切經源品次錄」 30권본(從梵 撰)의 不必要性이 제기되어 「校正別錄」 30권으로 대체되었다. 이 함차의 校勘記를 보면, “이 함차에는 본래 國本 「一切經源品次錄」 30권본(從梵 撰)이 들어 있었는데, 이

18) 姜順愛,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分析을 통해 본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變容에 관한 研究,” 『한국비블리아』 제7집(1994), 112-116.

19)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30 廻漢函 <摩訶衍論> 10권, <玄文論> 20권.

책은 諸經卷중의 首尾之言을 標舉한 것으로 藏經을 看覽하는 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삭제하고 『校正別錄』 30권으로 대체한다.”²⁰⁾라고 하였다. 다섯째, 國宋本の 錯重寫로 丹本에 의해 代替된 것으로 傳函, 『四分比丘尼羯磨』 1권본이 있는데, 守其의 『校正別錄』을 참조하면, “이는 國宋本과 丹本을 비교한 결과 丹本이 懷素가 所集한 문 의와 같아 正本에 해당하고 國宋本은 문장의 重用, 不分, 錯亂, 題目의 誤謬, 譯者의 錯誤등이 지적되어 丹本으로 代替한다.”²¹⁾라고 하였다. 여섯째, 國丹本 또는 丹本에 의해 國宋本 또는 宋本의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4종이 있는데, 谷函의 『大寶積經論』 4권(菩提流志 譯), 松函의 『雜阿舍經』 4권(求那跋陀羅 譯), 不函의 『別譯雜阿舍經』, 右函의 『神州三寶感通錄』 3권이 있다. 일곱째, 國丹本에 의해 宋本의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諸函의 『鼻奈耶』 10권이다. 守其法師의 校勘記에 의하면, “國丹本은 10권인데, 宋本은 8권이다. 宋本은 그중 5권과 7권이 누락되어 있고 6권이 5권으로 8권이 7권으로 되어 있다. 國丹本에 의해 송본을 보충하여 入藏한다.”²²⁾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감을 거쳐 대체한 것 외에도 패함부터 통합까지 93부 632권의 경전을 추조하였는데, 이는 『法苑珠林』 100권(K.1406), 『一切經音義』 100권(K.1498), 『續一切經音義』 10권(K.1497) 등의 辭書類와 『大乘菩薩正法經』 40권(K.1487), 『大乘集菩薩學論』 25권(K.1488), 『大乘中觀釋論』 18권(K.1482), 『如來不思議秘密大乘經』 20권(K.1486), 『除蓋障菩薩所問經』 20권(K.1476), 『大乘寶要論』 25권(K.1475), 『諸法集要經』 10권(K.1494), 『福集蓋正行所集經』 12권(K.1495), 『海意菩薩所問淨印法門經』 18권(K.1481), 『父子合集經』 20권(K.1496), 『金光明經』 4권(K.1465) 등의 대승경문이 포함되어 있다.²³⁾

20)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30 俊父密函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30권.

21)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22 傳函 <四分比丘尼羯磨> 1권.

22)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54 諸函 <鼻奈耶> 10권.

23)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동국대역경원 편, 『高麗大藏經』 (동국대역경원, 1976), 16.

4. 고려 팔만대장경의 봉안과 선원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이 끝난 후에는 강화경에서 조판한 경판과 남해의 분사 대장도감에서 조판한 경판을 합쳐 강화경의 대장경 판당에 봉안하여 마무리하는 경찬회를 가졌다. 『高麗史』에 의하면, 이 일을 주도한 인물은 崔沆이었다.²⁴⁾ 그는 아버지 최우가 고종 36년(1249)에 죽자 스님의 신분인 萬鈞으로 활동하다가 환속하여 崔沆으로 개명하고 최우의 뒤를 이어 집권하였고, 고종 37년(1250) 12월 문하시중으로 임명되면서 팔만대장경 판각의 마무리를 총 지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남해에 있던 鄭晏을 강화경으로 불러 지문하성의 참지정사로 임명하였는데²⁵⁾ 대장경 봉안의 마무리를 위한 경찬회를 주관하게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대장경을 봉안했던 판당은 禪院寺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졌다.

禪源寺는 고종 32년(1245)에 진양공 최우에 의해 창건되었는데 그 위치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선원사의 옛 터는 府로부터 남쪽으로 8리에 있으며 지금은 掌苑署의 果苑이 되었다.”²⁶⁾라고 하였고, 『江都志』에 의하면, “선원사는 府의 남쪽 8리에 있으며, 속칭 上林院이라고도 한다. 지금은 掌苑署의 栗場이 되었다.”²⁷⁾라고 하였으며, 『輿地圖書』의 <江都府誌> 寺刹條에는 “선원사는 선원면에 있으며 지금 장원서의 과원이 되었다. 옛 상신 金尙容이 선원면에 거주하면서 선원의 ‘禪’자를 ‘仙’자로 고쳐 자신의 호로 삼았다.”²⁸⁾라고 하였다. 『續修增補江都誌』에 의하면, “지금 仙杏里 忠烈祠 문전 일대가 그 遺址이다. 고려 고종대에 權凶 崔瑀가 건립한 것으로 宏麗하기가 지극하여 江都寺刹 중 제일도량이다.”²⁹⁾라고 하였다. 이들 문헌의 기록은 조선조 중종조 이후의 사료이다. 이들 네 가지 사료에서 공통적인

24) 『高麗史』 卷129, <列傳> 42, 崔沆.

25) 『高麗史』 卷100, <列傳> 13, 鄭晏.

2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2. “江華都護府 古跡 古基 在府南八里 今爲掌苑署果苑.” 중종 25년(1530).

27) 『江都志』 卷上, 古蹟條. “禪源寺[註: 在府南八里俗稱上林院今爲掌苑署栗場].” 숙종 22년(1696).

28) 『輿地圖書』 <江都府誌> 寺刹條. 英祖 33년-41년(1757-1765).

29) 朴憲用, 『續修增補江都誌』 卷上, 六章 二節, 古蹟條. 1932.

것은 선원사가 府의 남쪽 8리에 있고, 掌苑署의 果苑 또는 栗場이며, 옛 상신 金尙容이 이곳 선원면에 거주하였으며 지금의 仙杏里 忠烈祠 문전 일대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선원사의 위치를 놓고 앞에서 언급한 문헌상의 기록의 해석에 차이를 보였고, 고고학계에서는 발굴결과를 통한 발굴물들을 통해 의견을 달리하였다. 동국대는 1976년 조사한 것에 근거하여 1977년 지금의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일대를 사적 제259호로 강화선원사지로 지정하였고, 동국대 박물관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발굴 조사를 마치고 그 곳에서 나온 건물지군, 불당, 출토 유물 등을 들어 선원면 지산리 속칭 신니동 일대를 선원사지로 보았다.³⁰⁾ 최근에 金炳坤 교수는 관련기록을 분석하여 현 강화선원사지가 선원사임을 문헌적으로 밝혀서 이에 대한 논지를 보강했는데, 첫째, 『續修增補江都誌』에 의거하여 충렬사 일대가 선원사라고 하는 향토사가들의 주장에 대해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언급한 “선원사의 옛 터는 府로부터 남쪽으로 8리에 있다.”라는 기록과 거리가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한 花山の 용례들을 분석하여 花山은 지금 강화도의 남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도 전체를 표현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분석하여 화산에 선원사가 있다는 주장은 강화도에 선원가가 있다는 주장일 뿐 선원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셋째, 현 사적지가 신니동 가곶터라는 주장에 대해 신니동 내부에 가곶터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³¹⁾

한편 현 사적지를 신니동 가곶터로 보았던 이는 이병도였다. 이병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현 사적지의 해당 지명인 지산리는 과거 신니동으로 불리웠으므로 『고려사』 기록에 나오는 신니동 가곶터로 보아야 하며, 선원사의 위치는 충렬사 문전 일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향토사가들의 연구와 문헌적 검토를 통한 몇 편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중요한 근거자료는 위에서 언급한 『續修增補江都誌』이다. 최근에 채상식 교수는 기존의 문헌자료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기존의 고고학 성과에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현 강화선원사지가 선원사지로

30) 동국대학교 박물관, 『史蹟 259號 江華 禪源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I·II』 (동박물관, 2003).

31) 金炳坤, “사적 259호 江華 禪源寺와 神泥洞 假闕의 위치 비정,” 『불교학보』 48집(2008), 285-313.

볼 수 없다고 주장의 논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첫째, 조선시대에 들어와 선원사는 폐찰이 되고 그 유허지에는 장원서의 과원, 구체적으로는 울장이 들어섰는데 이 일대가 선행리라는 것이다. 둘째, 고려시대 문집자료를 통해 선원사가 위치하였다고 알려진 花山은 강화의 선원사가 아니고 구체적인 산명임을 밝혔다. 셋째, 선원사의 규모는 수백명의 스님들과 건물들 및 대장경판과 역대실록을 보관하던 규모로서는 현 사적지보다 넓어야 하므로 충렬사가 위치한 화산의 남쪽 일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현 사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중에 결정적인 단서가 없고, 몇가지 유물들만으로 선원사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³²⁾ 선원사의 위치에 대한 학자들간의 논쟁이 종식되려면, 좀 더 확실한 문헌 기록과 선원사의 위치를 분명히 입증할 고고 유물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두가지의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는한 이러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여하튼 선원사에는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었고,³³⁾ 충렬왕이 오랑캐의 병화를 피해 선원사에 1년 가량 이어했던 곳이며, 이후 이민족의 병화로부터 선대 실록을 보존하기 위한 사고로도 이용되었다. 왕실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받아 개경 환도이후에도 대형 사찰로서 여전히 고려말까지 사세가 이어졌다.³⁴⁾ 그러나 조선 태조 7년(1398)에 대장경판이 한양의 支天寺로 옮겨진 후에 역사속에서 잊혀져 그 기록마저 선원사를 완벽하게 입증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해인사 대장경판전의 移安과 판가 구성

고려 팔만대장경의 경판은 강화도 선원사에서 보관되다가 조선 태조 6(1398)에 서울 서대문 밖 지천사로 옮겨진 후 다시 해인사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국보 제52호의 해인사 大藏經板殿에 보관되어 있다. 이 장경판전은 大寂光殿 뒤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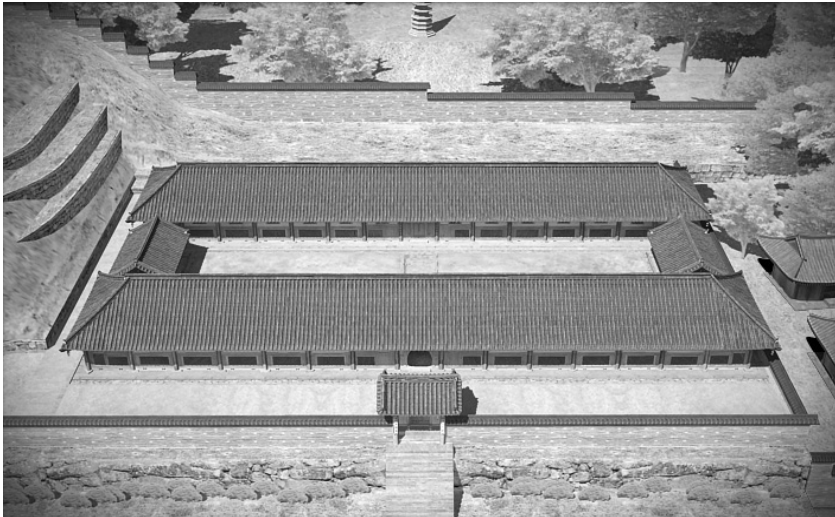
32) 채상식, “江華 禪源寺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한국민족문화』 제34호집(2009), 135-170.

33) 『太祖實錄』卷14, 太祖 7年(1398) 5月 10日(丙辰)條.

34) 金炳坤, “사적 259호 江華 禪源寺와 神泥洞 假闕의 위치 비정,” 『불교학보』 48집(2008), 302-303.

대상(臺上)에 자리 잡고 있고, 法寶殿과 修多羅殿 두 동의 주 건물과 동서사간전 등 두 채의 보조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판전은 조선 성종 19년(1488)에 모두 세워졌으며, 1622년과 1624년 두 차례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³⁵⁾ 이들 네 동의 건물 중 가로로 길게 늘어선 두 동의 건물에 팔만대장경의 경판이 보존되어 있는데 동북쪽에 위치한 건물이 법보전이고, 서북쪽 있는 것이 수다라전이다. 법보전은 정면 15칸, 측면 2칸의 규모이고, 수다라전 역시 정면 15칸, 측면 2칸으로 법보전과 규모가 같다. 동·서사간전은 수다라전과 법보전 사이 서북 끝과 동북 끝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도록 세워진 작은 경판전이며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 형식을 하고 있다(그림 1 참조).³⁶⁾

이들 네 동의 경판전은 해발 645m에 있는 판고가 지역적 특성상 3개의 계곡이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1km쯤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모두 건물의 외벽에 불박이



<그림 1> 해인사 대장경판전(앞쪽 건물: 수다라전, 뒤쪽 건물: 법보전, 동·서 사간전)
출처: <<http://www.i80000.co.kr/cyber/sub02.asp>>.

35) 한국불교연구원, 『海印寺』(一志社, 1984), 50-54.

36) <<http://www.i80000.co.kr/cyber/sub02.asp>>.

살창을 두고 있으며 그 때문에 내부의 통풍과 온도가 경관 보호에 최고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들 경관이 600년 동안 온전하게 보관되어 온 것은 바람이 항상 불어 자연적인 습도 조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판고의 시설 자체가 기막히게 조절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관은 5단으로 된 판가 각 단에 빼곡히 있는데 이 때문에 맨 위까지 경관 사이의 틈을 통해 바람이 지나가면서 골고루 습도 조절을 해주고 있다.

이 경관전에 봉안된 팔만대장경판은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10권을 단위로 해서 배열 순서를 천자문의 함차를 배정하고 있다. 경관의 배치는 법보전 중앙 판가 우측에 위치한 1번 판가에서 출발해서 규칙적으로 모든 판가를 채우고 수다라전 판가로 계속되며 모든 판가를 채우고 있다. 중앙 판가는 등을 대고 두 줄로 동서에 걸쳐서 2열로 배열되고 있다. 각 판가는 현재 대개 5단으로 되어 있고, 각 단은 앞뒤에 단을 구성한 두 개의 각목 위에 경관을 상하 두 줄로 포개서 세워서 엮어 놓았다. 서가 구성은 매우 치밀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K. 1 『大般若波羅蜜多經』의 경우는 경전 10권을 수용하는 한 함은 판가 한 단에 수용되고 있다. 상하 두 줄로 포개서 배열하게 된 판가 한 단이 한 개의 함에 해당되게 설계되었다. 즉 폭 약 300cm, 높이 64cm 규격의 한 단의 공간이 바로 한 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³⁷⁾ 이 배열의 흐름을 보기 위해 해인사 정경판전의 판가배치도 및 판가 번호는 <그림 2>와 같다.³⁸⁾

다음의 <그림 2>에 의하면, 법보전 1판가부터 58판가까지는 고려대장경 K. 1 『大般若波羅蜜多經板』부터 K. 582 『廣百論本』까지 배열되어 있고, 수다라전에는 59판가부터 120판가에는 K. 583 『大乘廣百論釋論』부터 K. 1257 『新集藏經音義隨函錄』 6권 42판까지 배열되어 있다. 수다라전의 판가 위는 K. 1257 『新集藏經音義隨函錄』 6권 43판부터 K. 1406 『法苑珠林』 49권까지 배열되어 있으며, 법보전 판가 위는 K. 1406 『法苑珠林』 50권부터 K. 1514 補遺目錄까지 배열되어 있다.

고려 팔만대장경판 경관전 판가별 경관수를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³⁹⁾

37) 이태녕, “팔만대장경판의 구성과 배열 내용,” 『법화』(2003. 4), 22-24.

38) <그림 2>는 해인사에서 조사하여 도표로 작성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

39) <표 2>는 해인사에서 조사하여 작성해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

<표 2> 고려 팔만대장경판 경판전 판가별 경판 매수

법보전 중앙 판가열		법보전 후면 판가열		수다라전 중앙 판가열		수다라전 후면 판가열	
판가명	경판수	판가명	경판수	판가명	경판수	판가명	경판수
법1-1판가	182	법29판가	341	수59-1판가	190	수91판가	364
법1판가	699	법30판가	346	수59판가	616	수92판가	368
법2판가	672	법31판가	349	수60판가	771	수93판가	355
법3판가	671	법32판가	335	수61판가	801	수94판가	355
법4판가	686	법33판가	343	수62판가	791	수95판가	360
법5판가	685	법34판가	341	수63판가	781	수96판가	357
법6판가	692	법35판가	375	수64판가	797	수97판가	356
법7판가	655	법36판가	323	수65판가	809	수98판가	361
법8판가	693	법37판가	371	수66판가	682	수99판가	375
법9판가	696	법38판가	366	수67판가	664	수100판가	372
법10판가	691	법39판가	363	수68판가	776	수101판가	377
법11판가	681	법40판가	376	수69판가	770	수102판가	368
법12판가	680	법41판가	300	수70판가	759	수103판가	349
법13판가	718	법42판가	342	수71판가	722	수104판가	350
법14판가	785	법43판가	357	수72판가	735	수105판가	345
법15판가	711	법44판가	387	수73판가	765	수106판가	356
법16판가	741	법45판가	390	수74판가	628	수107판가	355
법17판가	829	법46판가	366	수74-1판가	196	수108판가	348
법18판가	816	법47판가	335	수75-1판가	195	수109판가	356
법19판가	800	법48판가	341	수75판가	595	수110판가	362
법20판가	694	법49판가	344	수76판가	700	수111판가	385
법21판가	679	법50판가	371	수77판가	741	수112판가	365
법22판가	780	법51판가	397	수78판가	767	수113판가	369
법23판가	761	법52판가	381	수79판가	730	수114판가	379
법24판가	799	법53판가	355	수80판가	747	수115판가	367
법25판가	822	법54판가	350	수81판가	762	수116판가	370
법26판가	792	법55판가	352	수82판가	629	수117판가	368
법27판가	777	법56판가	367	수83판가	614	수118판가	363
법28판가	742	법57판가	386	수84판가	780	수119판가	357
법28-1판가	178	법58판가	366	수85판가	771	수120판가	357
법.판가위	4,514	중복판	108	수86판가	719	수. 판가 위	2,397
		법.판가위	2,719	수87판가	723		
				수88판가	720		
				수89판가	733		
				수90판가	587		
				수90-1판가	194		
				수. 판가위	5,260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에 관한 연구

법보전중앙열	25,321	법보전후면열	13,543	수다라전중앙열	29,220	수다라전후면열	13,266
				법보전	中央列	25,321	
				법보전	後面列	13,543	
				수다라전	中央列	29,220	
				수다라전	後面列	13,266	
				총경판수		81,350판 (중복판 108판)	

위의 <표 2>에 의하면, 첫째, 법보전의 중앙판가열은 25,321판인데, 법보전 1-1판가부터 28-1판가에 위치한 경판은 20,807판이고 판가위에 있는 것이 4,514판이다. 둘째, 법보전의 후면 판가열은 13,543판인데, 법보전 29판가부터 58판가에 위치한 것은 10,716판이고, 중복판이 108판 있으면 판가위는 2,719판이다. 셋째, 수다라전의 중앙 판가열은 29,220판인데, 수 59-1 판가부터 수 90-1판가까지 23,960판이고, 판가위는 5,260판이다. 넷째, 수다라전의 후면 판가열은 13,266판인데, 수 91판가부터 수 120판가까지 10,869판이고, 판가위는 2,397판이다.

이들 경판은 경판의 앞뒤로 평균 23행14자의 판식으로 새겨 넣었지만 행자수의 드나듬이 있다. 글자크기는 사방 1.5cm이다. 판별로 권수제, 판제, 권차, 장차 및 함차의 표시가 되어 있고, 각 경의 마지막 장에는 ‘○○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또는 ‘○○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라고 판각연대를 밝혀 놓았다. 마구리는 경판보다는 약간 높고 두꺼운 각목으로 경판 양쪽 끝에 대고 네 귀퉁이에는 구리판의 장식을 붙였다. 이 동제 장식의 마구리는 경판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고 경판의 뒤틀림이나 터짐을 방지하며 보관 시 바람이 잘 통하도록 경판보다 두껍게 하였다. 이 마구리에도 경명과 함차, 권차, 장차 표시가 음각되어 있어 검색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6.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팔만대장경의 판각 및 규모를 보면, 고려 고종 18년(1231) 8월에 몽골의 침입으로 인하여 초조대장경이 불타고 없어지자 불력의 수호에 힘입어 외침에 대항하기 위해 고종 23년(1236)부터 38년(1251)까지 16년 동안 판각하여 조성된 1,514종(경) 81,350판인데, 중복판 108판을 제외하면 81,242판이다. 이중 대장도감판이 72,610판이고, 분사대장도감판이 8,632판이다. 고종 24년(1237)부터 고종 29년(1242)까지는 강화의 대장도감을 중심으로 판각이 이루어졌고, 고종 30년(1243)부터는 대장도감과 남해 분사도감이 함께 판각을 하였다. 판각의 양은 드러나들이 있는데 고종 30년(1243)과 고종 31년(1244)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2) 팔만대장경의 구성 체계를 종합해보면, 天函부터 寧·晉·楚函은 초조대장경의 구성체계인데, 장경이 수입되는 대로 간행하여 累加 編入하면서 函次順에 의해 구성하였다. 天函부터 英函까지는 『開元釋教錄』에 의거하여 板刻한 北宋 開寶勅板의 구성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구성체계가 일정하지만, 杜函부터 楚函까지는 宋朝大藏經이 들어오는 대로 累加 編入되었기 때문에 구성이 일정하지 않다. 更函에는 『大藏目錄』이 들어 있으며, 霸函부터 洞函까지는 再雕시의 추조본이다. 또 다른 하나는 팔만대장경은 대장도감의 설치이후 본문의 검토와 교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추가하였다. 우선, 『三本華嚴經』은 晉本 60권, 周本 80권, 貞元本 40권인데, 초조본의 14자 판식을 국내 사찰본인 17자 판식으로 대체하여 편입시켰다. 이통현이 지은 『新華嚴經論』 40권은 초조본의 14자 판식을 국내 사찰본인 16자 판식으로 대체하여 편입시켰다. 또한 守其 법사가 총 70합 66경 79건의 경전을 교감하였는데, 첫째, 초조본의 위본은 再雕時 경전의 眞僞 與否로 宋本을 丹本으로 대체한 것이 7종, 둘째, 宋本 또는 國宋本の 無失로 丹本이 編入된 것이 3종, 셋째, 宋本, 國宋本, 國本の 重出로 再雕時 削除하거나, 丹本이나 다른 經典으로 代替한 것이 5종, 넷째, 俊乂密函에 들어 있던 國本 『一切經源品次錄』 30권본(從梵 撰)을 그 불필요성으로 인해 『校正別錄』 30권으로 대체하였고, 다섯째, 國宋本の 錯重寫로 丹本에 의해 代替된 傳函의 『四分比丘尼羯磨』 1권본, 여섯째, 國丹本 또는 丹本에 의해 國宋本 또는 宋本의 내용을 정정한 것이 4종, 일곱째, 國丹本에 의해 宋本의 내용을 정정한 諸函의 『鼻奈

耶」 10권 등이다. 이와 같이 교감을 거쳐 대체한 것 외에도 패함부터 통합까지 93부 632권의 경전을 추조하여 입장시켰다.

3) 팔만대장경의 봉안은 대장도감과 분사도감 두 곳의 판각을 합쳐서 강화의 대장경판당에 봉안하고 경찬회를 행하였다. 대장경판당은 선원사에 위치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선원사의 위치는 강화도 신니동 일대로 보는 의견과 선행리 충렬사 앞·뒤쪽 일대로 보는 두 견해가 있다. 선원사는 고려말까지 사세를 유지하면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였다.

4) 팔만대장경의 봉안은 처음에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되다가 조선 태조 7년(1398)에 서울 서대문 밖 지천사로 옮겨진 후 다시 해인사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국보 제52호의 해인사 대장경판전(大藏經板殿)에 보관되어 있다. 네 동의 건물 중 팔만대장경의 경판이 보존되어 있는 두 동은 동북쪽에 위치한 법보전과, 서북쪽 있는 수다라전이다. 이 경판전에 봉안된 팔만대장경판은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10권을 단위로 해서 배열순서는 천자문의 합차를 배정하고 있다. 경판의 배치는 법보전 중앙 판가 우측에 위치한 1번 판가에서 출발해서 규칙적으로 모든 판가를 채우고 修多羅殿 판가로 계속되며 모든 판가를 채우고 있다. 법보전 1판가부터 58판가까지는 고려대장경 K. 1 『大般若波羅蜜多經板』부터 K. 582 『廣百論本』까지 배열되어 있고, 수다라전에는 59판가부터 120판가에는 K. 583 『大乘廣百論釋論』부터 K. 1257 『新集藏經音義隨函錄』 6권 42판까지 배열되어 있다. 수다라전의 판가 위는 K. 1257 『新集藏經音義隨函錄』 6권 43판부터 K. 1406 『法苑珠林』 49권까지 배열되어 있으며, 법보전 판가 위는 K. 1406 『法苑珠林』 50권부터 K. 1514 補遺目錄까지 배열되어 있다. 경판전의 판가별 경판수를 보면, 법보전의 중앙판가열은 25,321판, 법보전의 후면 판가열은 13,543판, 수다라전의 중앙 판가열은 29,220판, 수다라전의 후면 판가열은 13,266판이며 총 81,350판이다.

<참고문헌>

- 姜順愛. “고려 팔만대장경 『유가사지론』의 판각과 봉안에 관한 사례 연구.” 『소통과 인문학』 제10집(2010).
- 姜順愛.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分析을 통해 본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變容에 관한 研究.” 『한국비블리아』 제7집(1994).
- 姜順愛.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의 累加的 性格에 관한 研究.” 『大藏經의 世界』. 東國譯經院, 1994.
- 『江都志』 卷上, 古蹟條. 숙종 22년(1696).
- 『高麗史』 卷24, <世家> 24, 高宗 38年 9月 壬午.
- 『高麗史』 卷100, <列傳> 13, 鄭晏.
- 『高麗史』 卷129, <列傳> 42, 崔沆.
- 金炳坤. “사적 259호 江華 禪源寺와 神泥洞 假闕의 위치 비정.” 『불교학보』 48집 (2008).
- 동국대학교 박물관. 『史蹟 259號 江華 禪源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I·II』 (동 박물관, 2003).
- 朴憲用. 『續修增補江都誌』 卷上, 六章 二節, 古蹟條. 1932.
- 『禪門拈頌集』 卷30, 末尾 斷俗寺住持禪師萬宗記 ; 癸卯中秋逸庵居士鄭晏跋.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30 廻漢函 <摩訶衍論> 10권, <玄文論> 20권.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30 俊父密函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30권.
-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22 傳函 <四分比丘尼羯磨> 1권.
- 守其.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권54 諸函 <鼻奈耶> 10권.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2. 중종 25년(1530).
- 『輿地圖書』 <江都府誌> 寺刹條. 英祖 33년-41년(1757-1765).
-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5, <大藏刻板君臣祈告文>.
-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동국대역경원 편. 『高麗大藏經』. 동국대

역경원, 1976.

이태녕. “팔만대장경판의 구성과 배열 내용.” 『법화』(2003. 4).

張曼濤. 『佛敎目錄學述要』. 臺北: 大乘出版株式會社, 民國67(1978).

智昇. 開元釋敎錄, 권11-13 有譯有本錄. 大正新修大藏經 目錄部. 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77.

채상식. “江華 禪源寺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한국민족문화』 제34호집(2009).

千惠鳳. “고려대장경의 구성과 봉안.” 강화부군사편찬위원회 편. 『新編江華史』 강화부군사편찬위원회, 2003.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 景仁文化社, 2006.

최영호.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각성사업에 대한 근대 100년의 연구사 쟁점.” 『석담논총』 44(2009).

최영호. “13세기 중엽 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운영형태.” 『석담논총』 43(2009).

『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1398) 5月 10日(丙辰)條.

해인사. 해인사 자문회의 보고자료(2009. 6).

한국불교연구원. 『海印寺』. 一志社, 1984.

황선엽. “『유가사지론』 卷5, 卷8의 書誌.” 『돈암어문학』 제17집(2004. 12).

佐佐木敎語 等著, 權五民 譯. 『印度佛敎史』. 經書院, 1989.

<<http://www.i80000.co.kr/cyber/sub02.asp>>.

